

국별 리포트

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87천 km ²	G D P	752억 달러 ('14)
인구	9.48백만명	1인당 GDP	7,935달러 ('14)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zerbaijani Manat(AZN)
대외정책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및 EU와의 협력관계 강화	환율(달러당)	0.78

- 1991년 독립 이후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소수 권력층과 일부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유(세계 20위), 천연가스(세계 25위) 생산 및 경유지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통적 협력국인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움직임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EU와는 에너지 시장 다변화를 위해 최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독립 이후 시작된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이 아직 까지 진행 중임에 따라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률	4.9	0.1	2.2	5.8	2.8
재정수지 / GDP	-0.9	0.6	0.3	0.6	-0.5
소비자물가상승률	5.7	7.8	1.1	2.5	1.5

자료: EIU.

□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2014년 경제성장률 2.8%로 둔화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산업다변화 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부문 투자로 건설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편임.
- 2012년에는 원유 생산량 축소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약화로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3년에는 정부의 산업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부문 정부지출 확대에 건설부문이 전년 대비 23% 성장하며 5.8%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 2014년에는 정부지출 감소,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둔화된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이후 국내총투자율은 지속 상승하여 2013년 이후 25%를 상회함.

□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낮은 수준 형성

- 2012년에는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황 호조와 중앙은행의 제한적 통화공급 정책이 맞물리며, 1.1%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2013년에도 제한적 통화공급 정책 및 소득증가율 둔화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2014년에는 낮은 수준의 국제식료품 및 상품가격,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 등으로 1.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아제르바이잔은 비에너지 부문 상품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실상의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페그제를 시행하고 있어 물가관리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마낫화 가치절하 압력으로 통화 바스켓 환율제도를 도입함.
- 아제르바이잔은 수입대체산업 부재에 따른 과도한 수입의존도로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인데, 2015년에는 마낫화 가치절하(2015년 2월)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물가급등이 우려됨.

□ 2014년 재정수지 적자전환

-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유가 하락 시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즉, 국가석유기금(State Oil Fund of Azerbaijan: SOFAZ)을 예산에 전용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국가석유기금 예산전용액이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함.
- 2013년에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석유기금 예산전용액을 통해 GDP 대비 0.6%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함. 2014년에는 비에너지 부문 세수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가석유기금 예산전용액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0.5%의 적자를 기록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관련 제품 수출이 총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재정수지 적자전환 등 어려움을 겪음.

- 원유·천연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및 건설 부문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독립 이후 내전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붕괴된 비에너지 부문과 농업은 투자 부진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음.

□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으로 투자환경은 열악한 수준

- 아제르바이잔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에너지 분야 이외 비에너지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극심한 관료주의, 부정부패, 취약한 법치제도, 이해집단의 정경유착 등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한 수준임.
-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2015)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189개국 중 80위를 기록하며 전년 70위 대비 순위가 하락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간소화된 등록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사등록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에 따라, 사업등록(12위), 재산등록(10위), 법적분쟁해결(31위)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반면, 사업허가(150위), 전력수급(159위), 국제교역(166위) 등의 지표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은 악화됨.

나. 성장 잠재력

□ 부존자원 개발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BP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13년 말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70억 배럴(세계 0.4%)에 달하는 원유와 0.9조 m³(세계 0.7%)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BP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카스피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제르바이잔 석유 생산량의 약 80% 가량을 차지하는 ACG(Azeri-Chirag-Guneshli) 유전과 샤 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을 개발한 바 있음.
 - 샤 데니즈 가스전은 BP, Statoil이 각각 25.5%, SOCAR(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공사), Lukoil, Total, NIOC 등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개발 진행 중으로 2019년 개발완료시 연간 160억 m³의 가스가 추가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시장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 가능성

-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송이 정치적, 기술적 요인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유럽은 러시아 이외 에너지 공급원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주목함.
- 2013년 6월 BP 주도의 샬 데니즈 국제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의 대 유럽 공급노선으로 TANAP(Trans Anatolian Pipeline) 가스관을 선정하고, 2015년 3월 터키에서 착공식을 개최함.
 - 동 가스관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샬 데니즈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안정적으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운반 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스수출 확대 및 통관료 등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다각화 추진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성장동력인 원유 생산량이 2016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낮은 국제유가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국가석유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높은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14년 예산 중 건설 분야에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배정됨.
 - 주요 인프라사업으로 바쿠-트빌리쉬-카르스(Baku-Tbilisi-Kars: BTK) 철도 프로젝트, 2015년 6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예정인 유럽 올림픽게임 관련 남북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이 계획임.

□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 등 석유화학단지 수직계열화 추진

-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는 17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며, 동 프로젝트는 가스처리플랜트, 정유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어 석유화학단지의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이후 가스처리플랜트에서는 연간 120억 m³의 가스를, 정유플랜트에서는 연간 800만~1,000만 톤의 정유를, 석유화학플랜트에서는 연간 10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프로젝트 건설비용 중 30%는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에서, 나머지 70%는 해외용자 및 국가석유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 완공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고용 증대 및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대외거래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하락 추세이나 아직도 10%를 상회하는 수준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주로 수출하고,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아직까지 비에너지 산업의 발달 수준이 낮아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원유·천연가스 수출로 인해 상품수지는 대규모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는 국내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1.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2013년에는 기계장비 및 수송차량에 대한 높은 국내수요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 및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7.6%를 기록함.
- 2014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상품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의 국제시세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3.4%로 하락했으며, 외환보유액은 2014년 기준 월평균수입액의 7.8개월 수준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4년 총수출증가율 및 GDP 대비 총수출 비중 전년 대비 하락

-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상품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출 역시 감소하며, 2014년 총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7%로 하락했으며, GDP 대비 총수출 비율도 2012년 이후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2014년에는 44.2%를 기록함.

- GDP 대비 총수출 추이(%): 57.8('11) → 52.2('12) → 48.2('13) → 44.2('14)

□ 2015년 2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마낫화 가치절하

- 2014년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 급락으로 마낫화 가치절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15년 2월, 중앙은행은 기존 미 달러에 대한 고정페그제 대신 달러-유로화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마낫화 환율은 미 달러 대비 33.5% 가치절하됨(기존 미 달러 대비 마낫화 환율은 0.78마낫 수준이었으나, 가치절하 이후 1.05마낫 수준으로 상승함).

- 엘만 루스타모프(Elman Rustamov) 중앙은행 총재는 추후 인플레이션 목표설정 및 변동환율제로의 점진적 이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나, 아제르바이잔의 취약한 금융·외환시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5.1%로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수준

- 취약한 금융산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자금조달 부족 및 해외차입 제약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총외채 규모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총수출액 감소로 2013년 25.8%에서 2014년 34.1%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2014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5.1%로 경제규모 대비 외채상환부담은 아직은 낮은 수준임.

□ 양호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

- 2013년 아제르바이잔의 단기외채가 전년 대비 93% 증가함에 따라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2014년 기준 동 비율은 12%로 아직까지 중장기 양허적 조건의 외채 비중이 높은 편임.

- 2014년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12.7%로 낮은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5.3%로 양호한 수준임.
-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시현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146억 달러 수준임.

<표 2>**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 상 수 지	10,521	17,156	14,881	13,079	10,090
경 상 수 지 / GDP	28.4	26.0	21.4	17.6	13.4
상 품 수 지	19,711	24,338	22,181	21,381	19,338
수 출	26,374	34,393	32,374	31,702	28,959
수 입	6,663	10,055	10,193	10,321	9,621
외 환 보 유 액	6,409	10,274	11,277	14,401	14,647
총 외 채 잔 액	7,029	8,084	9,551	9,219	11,330
총외채잔액/GDP	13.3	12.3	13.7	12.4	15.1
D S R	1.8	5.0	5.4	7.1	5.3

자료: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1. 정치안정****□ 알리에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 지속**

- 부친에 이어 2003년부터 집권해 온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9년 10월 3선 금지 헌법조항 개정을 통해 2013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하며 3선 연임에 성공함.
- 알리에프 대통령은 84.5%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10명의 후보 중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한 자밀 하산리(Camil Hasanli)가 5.5%로 2위를 기록함.
- 알리에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한 무력동원, 언론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해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로 사회불만을 잠재우며 선거 때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음.

- 야당세력들은 원외 활동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언론에 대한 제한적 접근, 자금력 부족 및 정부의 시위금지 정책 등으로 인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소득불평등 및 고위층 부패에 따른 반정부 시위 가능성

- 고위층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소득 불평등 및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사회불만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반정부 시위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경제성장을 둔화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에 따른 사회불만이 강력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정부는 체제안정 유지를 위해 주요 반정부 인사에 대한 단속, 국제 NGO 단체의 자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활동금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검찰은 2014년 12월 미국 라디오 방송국인 RadioFreeEurope/RadioLiberty(RFE/RL)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카디자 이스마일로바(Khadija Ismayilova)를 전 동료에 대한 자살유도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해당 방송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 검찰은 이스마일로바가 외국 비밀기관을 위해 일하고, 사회 유명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스마일로바의 지지자 및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만을 문제삼아 구속됐다며 정부를 비판함.

3. 국제관계

□ 아르메니아와의 영유권 분쟁 등 갈등 지속

- 구소련 체제로부터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1988년 유혈사태 발생, 1994년 양국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현재 아르메니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 휴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을 두고 양국 군대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11월 아르메니아군 헬기가 격추되는 사고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됨. 아제르바이잔군은 당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훈련비행을 하고 있던 아르메니아군 헬기를 격추시킴에 따라 헬기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몇 년간 국방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등 군사충돌에 대비하고 있으며, 양국간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동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및 EU와의 협력관계 강화 움직임

- 2013년 8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및 아제르바이잔의 러시아 군수물자 수입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움직임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됨.
- 러시아가 지난 2002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통해 아르메니아와 군사적 협력관계를 맺음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 반면, 아제르바이잔이 EU와 직접 연결되는 TANAP 구축을 추진하고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타 CIS 국가와는 다른 독자 노선을 보임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불만이 고조됨.
- EU는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확보,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및 동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송루트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수준이고,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도 미미한 수준
 -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출에 기인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총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2014년 12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4.5억 달러, 중장기 33.1억 달러 등 37.6억 달러임. 이 중 0.4%에 해당하는 16.2백만 달러(단기 0.6백만 달러, 중장기 15.6백만 달러)가 연체 중이며, 단기 연체금액 중 0.5백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15. 3)	C2 (2014. 3)
OECD	5등급 (2015. 1)	5등급 (2014. 1)
S&P	BBB- (2015. 1)	BBB- (2011. 12)
Moody's	Baa3 (2014. 3)	Baa3 (2012. 4)
Fitch	BBB- (2015. 3)	BBB- (2014. 9)

-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은 투자적격 등급 부여
 - 2015년 1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독일, 벨기에, 미국 등이 4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을 제안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 독재체제 지속 등의 이유로 기존과 동일한 5등급을 유지함.
 - 아제르바이잔은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는 2011년 12월 BBB-로 한단계 상향조정 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와 Fitch 역시 2012년 4월, 2010년 5월에 각각 Baa3, BBB-로 한단계 상향조정 한 이후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추이
 - OECD: 5등급('13.1) → 5등급('14.1) → 5등급('15. 1)
 - S&P: BB+('09. 12) → BBB-('11. 12) → BBB-('15. 1)
 - Moody's: Ba1('09. 6) → Baa3('12. 4) → Baa3('14. 3)
 - Fitch: BBB-('14. 3) → BBB-('14. 9) → BBB-('15. 3)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Full public and limited private sector cover)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ST and MT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Restrictions will apply)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아제르바이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216,948	282,067	308,444	269,573	자동차, 합성수지, 기계요소
수 입	269	87	3,361	54	석유제품, 동광, 기호식품
합 계	217,217	282,154	311,805	269,627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92년 2월 23일(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06),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 투자증진및보호협정,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협정(이상 '08), 경제협력에관한협정('1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운전면허증상호인정및교환협정(이상 '13)
- 양국간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2014년 전년 대비 교역규모 감소
 - 아제르바이잔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2014년 기준 교역규모는 2013년 석유제품의 일시적 수입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2,696만 달러 수준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영상기기,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호식품, 기타섬유제품, 전자응용기기 등임.

□ **대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2014년 12월말 누계): 19건, 467만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인데, 2014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건설업부문 투자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 투자증가로 전년과 유사한 21.3만 달러 수준임.
- 2014년 12월 기준 누계금액은 467만 달러로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416만 달러로 89%를 차지하며, 이밖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V. 종합 의견

- 정부지출 감소,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된 2.8%를 기록하였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식료품 및 상품가격 하락,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 등에 따라 2014년 1.5%로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2014년 -0.5%를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됨.
- 주요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시세 급락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총수출이 전년 대비 -7%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총수출 비율이 2014년 말 44.2%로 하락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는 2014년 기준 12.7%로 중장기 양허적 조건의 외채 비중이 높아 단기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임.
- 알리에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위층에 만연된 부정부패, 소득불평등 등으로 인한 사회불만이 내재되어 있음.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EU의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노력으로 대 EU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조사역 김세진 (☎02-6255-5703)
E-mail: sejin0302@koreaexim.go.kr